

보도시점 2025. 2. 6.(목) 12:00 / 배포 2025. 2. 6.(목) 08:30
<2. 7.(금) 조간 >

2024년 공정위 승소율 91.2%

-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
- 전부승소율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82.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 (분석 기간 및 대상) '24.1.1. ~ 12.31. 기간 중 선고판결 기준

* ①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②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

< 2024년 법원 판결 주요 동향 >

가. 2024년 확정판결* 결과 분석

* 2024년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 최근 전부승소율: 70.9%('20년)→82.0%('21년)→70.9%('22년)→71.8%('23년)→82.4%('24년)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기준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75건	8건	8건	91건
	82.4%	8.8%	8.8%	100.0%
과징금액*	447,445	-	8,054	455,499
	98.2%	-	1.8%	100.0%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다.

한편,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하였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하였다.

분야별 공정위 승패소 현황

(단위: 건,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구분	담합(카르텔)	불공정거래	하도급	부당지원	기타
승소	40	6	12	5	12
일부승소	1	2	2	3	-
패소	1	1	2	-	4

* 유통/대리점/가맹 사건은 불공정거래에 포함

한편, 2024년 결과를 포함하여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였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 3,876억 원 과징금 중 **95.0%(2조 2,67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0~2024년 평균	335건(76.0%)	66건(14.9%)	40건(9.1%)	441건(100%)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2023년	61건(71.8%)	16건(18.8%)	8건(9.4%)	85건(100%)
	2022년	61건(70.9%)	18건(20.9%)	7건(8.2%)	86건(100%)
	2021년	82건(82.0%)	10건(10.0%)	8건(8.0%)	100건(100%)
	2020년	56건(70.9%)	14건(17.7%)	9건(11.4%)	79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 원),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 원) 등이 있다.

< 2024년 공정위 주요 승소확정판결 사례 >

①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24. 12월 확정 판결)

☞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들이 2012년~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

* 제강시설을 갖추고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사업자

**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사업자

⇒ (처분 일자) 2022. 11. 8. 시정명령, 과징금(총 2,565억 원)

⇒ (소송 경과) 2023. 3. 9. ~ 3. 16. 7개사 소 제기

2024. 7. 25. ~ 8. 21.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12. 12. 대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확정)

②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4. 3월 확정 판결)

☞ 창신아이엔씨*는 창신그룹의 해외생산법인들에게 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에 대한 자재구매대행 수수료를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흥을 부당지원

* 창신아이엔씨는 나이키 신발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신발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2016~2018년 평균 매출액 약 1조 2천억 원)

⇒ (처분 일자) 2021. 7. 12. 시정명령, 과징금(총 347억 원)

⇒ (소송 경과) 2021. 8. 13. 창신아이엔씨 외 4개사 소 제기

2024. 1. 25.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6. 17. 대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확정)

③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4. 8월 확정판결)

☞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 방법을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하였음

⇒ (처분 일자) 2022. 3. 28. 시정명령 및 과징금(13억 원*)

* 과징금은 분할신설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게 부과되었음

⇒ (소송 경과) 2022. 4. 29.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 소 제기

2024. 4. 17.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8. 29. 대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확정)

나. 2024년 선고판결* 결과 분석

* 확정여부와는 상관없이 2024년에 선고된 것

2024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선고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

(일자: 2024. 12. 31. 선고판결기준)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93건	13건	16건	122건*
76.2%	10.7%	13.1%	100.0%

* 2024년 판결이 확정된 91건 외에 상고제기 등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31건 포함

2024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 원), 제너시스 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 원) 등이 있다.

< 2024년 공정위 주요 승소선고판결 사례 >

①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24.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포크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경쟁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하였음

*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게는 경쟁OS가 됨

⇒ (처분 일자) 2021. 12. 30. 시정명령, 과징금(총 2,249억원)

⇒ (소송 경과) 2022. 1. 24. 구글 소 제기

2024. 1. 24.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2. 14. 구글 상고 제기 → 대법원 계류 중

②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24. 9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 3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2013~2016년, 2019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음

⇒ (처분 일자) 2022. 9. 7. 시정명령, 과징금(총 564억 원)

⇒ (소송 경과) 2022. 10. 27. 3개사 중 2개사(A사, B사) 소 제기

2023. 10. 26. A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3. 14. A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확정)
 2024. 9. 11. B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전부승소)
 2024. 10. 4. B사 상고 제기 → 대법원 계류 중

③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4. 7월 대법원 판결선고)

☞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를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가맹계약서에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 방해'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로 활동한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음

* 제너시스비비큐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처분 일자) 2021. 6. 9. 시정명령, 과징금(총 17억 원)

⇒ (소송 경과) 2021. 7. 22. 제너시스비비큐 소 제기

2022. 10. 13.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공정위 일부승소*)

* 다른 처분은 모두 적법하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에 대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해당 부분 시정명령, 과징금(4억 원)은 취소

2022. 11. 21. 공정위와 제너시스비비큐 모두 상고 제기

2024. 7. 11. 대법원 판결 선고(파기환송 -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계류 중

< 향후 대응 계획 >

공정위는 2024년에도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 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0-4153)
		담당자	사무관	전병화 (044-200-4154)